

강예원, 성형수술 7번 고백..."몰래 성형 그만해"

등록 2026.06.14 09:30:00



[서울=뉴시스] 손정빈 기자 = 배우 강예원이 최근 눈 앞트임 복원 수술을 하는 등 성형수술을 7번 했다고 말한다.

강예원은 14일 방송하는 SBS TV 예능프로그램 '미운 우리 새끼'에 나와 성형 관련 얘기를 한다.

강예원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안경을 쓴 모습으로 등장해 양치질 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.

이걸 본 서장훈은 "저런 모습까지 나와도 되냐"고 묻고, 배우 한채아는 "언니가 많이 내려놨다"고 해 웃음을 자아낸다.

강예원 룸메이트는 강예원 얼굴을 보며 "21년 동안 본 얼굴 중에 제일 완성도 있다. 이제 몰래 성형 그만하라"고 말한다.

강예원은 7차례 걸친 성형에 관한 얘기를 해 스튜디오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를 당황하게 한다.

강예원은 최근 눈 앞트임 복원 수술을 해 달라진 얼굴을 보여준 적 있다.

한편 강예원은 최근 세상을 떠난 아버지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다.

강예원은 아버지가 남긴 부채 규모에 큰 충격을 받는다.

변호사는 "지금 확인된 아버지의 빚만 10~11억원"이라고 말한다.

강예원은 아버지가 남긴 빚을 해겨랴기 위해 아버지 회사 직원을 만난다. 그러면서 강예원은 "밀린 월급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겠다"며 눈물을 흘린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jb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